소액신용대출 외면하는 저축은행

1년새 1600억↓ 감소…"득보다 실 많다 판단"

저신용자, 사금융 내몰려…당초 목적 반대 결과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업계 전체로는 1년 만에 16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었고 주요 업체들 가운데서는 50% 가까이 줄인 곳도 있었다.

저축은행업권이 금리인하 압박에 대출총량규제까지 적용받자 소액신용대출 운영에 대한 유인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모양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총액은 7882억 4000만원으로 전년(9539억5200만원) 대비 17.4%(1657억1200원) 감소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저축은행 총대출과 비교하면 소액신용대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저축은행 총대출은 ▲2016년 9월 41조1832억7100만원 ▲2017년 9월 49조3938억2500만원 ▲지난해 9월 57조2720억5600만원 등으로 매년 약 8조원씩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소액신용 대출은 2016년 9월 1조764억 8100만원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나 주요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축소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SBI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2016년 9월 1043억1600만원에서 지난해 9월 909억9700만원으로 12.8% 줄었다. OK저축은행은 14.6%(2695억300만원→2302억7300만원), 웰컴저축은행은 23.0%(2047억4300만원→1576억4400만원), 애큐온저축은행은 32.1%(355억5700만원→231억2800만원), JT친애저축은행은 46.3%(443억2800만원→237억8400만원) 줄였다.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운영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이용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다. 긴급대출에 가까워 연체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높다"며 "대출 총량규제가 적용되면서 중금리대출보다 리스크가 높은 소액신용대출에서 손을 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액신용대출은 단기간에 빌려주면서 높은 연이율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높아진다"며 "금리 관리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인하 방침이 외려 어려운 이들의 대출절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균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록 소액신용대출의 감소세도 빨라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이 막히면 기존 이용자들은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당초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긴급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기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정책금융이 이들을 모두 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출절벽에 따른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저축銀 가계대출 금리 내리막…高금리대출 취급 큰폭↓

작년 12월 신규취급 평균 금리 19.3%…전년比 3.2%p↓

정부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자 지난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취급 평균 금리는 19.3%로 전년동월 22.5%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평균금리도 지난해 12월 21.0%로 전년동월 23.2% 대비 2.2%포인트 줄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한 이후 급격히 하락한 뒤에는 완만한 내림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4.0%로 또 한 차례 내리며 하락폭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880억원,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0억~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신규취급 가계대출 중에서도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 67.6% 대비 27.8%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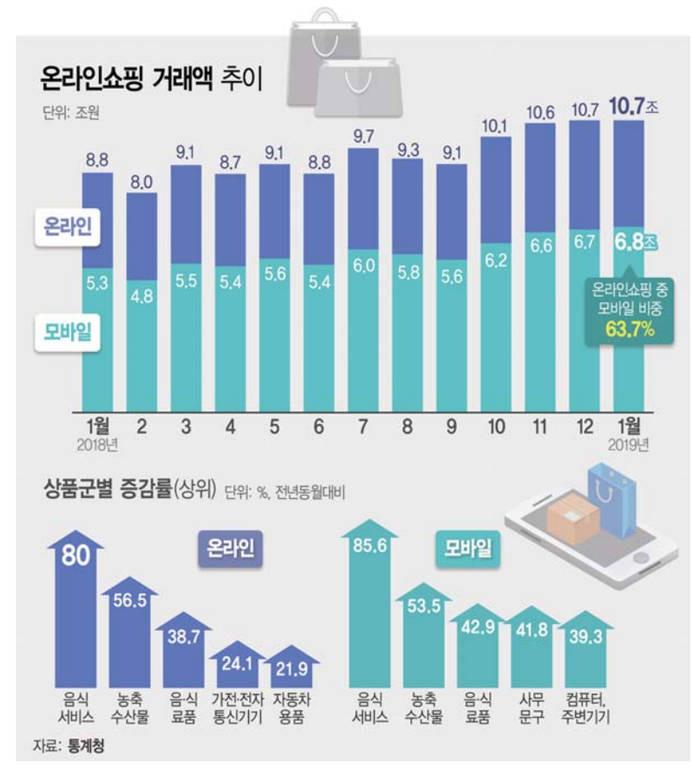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외에도 정부가 고금리대출의 충당금 50% 추가 적립이나 신규취급 중금리대출의 관리대상 제외 조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은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저신용 차주는 월평균 1만3100명으로 전년 1만3900명 대비 5.5%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저신용자 대출액도 월평균 1132억원으로 1060억원을 기록한 전년과 비슷했다.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은 OK로 1조817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고금리대출 비중은 84.6%에 달했다.

이어 ▲SBI 1조1881억원(54.1%) ▲웰컴 8189억원(72.7%) ▲유진 6042억원(72.8%) ▲애큐온 4162억원(66.5%) ▲JT친애 2753억원(31.9%) ▲페퍼 1901억원(24.6%) ▲한국투자 1833억원(73.1%) ▲예가람 1052억원(62.4%) ▲고려 952억원(57.1%) 등이 뒤를 이었다.

외환보유액 4046.7억달러…넉달만에 감소세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월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한 404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외화를 검수하는 모습.



미세먼지의 공습

음식 시켜 먹고 온라인서 쇼핑

통계청,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전년比 17.9% ↑…역대 최대

미세먼지가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배달음식 주문과 마스크·공기청정기 온라인 주문이 지난달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7034억원이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금액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6조8170억원으로 27.7% 늘었다. 역시 역대 최대다.

온라인쇼핑보다 모바일쇼핑의 거래액이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3.7%까지 커졌다.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했다.

'음식서비스'가 전년 대비 80.0% 늘어 상승 폭이 컸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로 음식서비스의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759억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6270억원)의 91.9%를 차지했다. 음식서비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전년 대비 85.6%나 늘었다.

공기청정기가 포함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쇼핑 거래액(1조590억원)도 24.1%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6023억원) 증가율은 31.4%다. 이 품목에는 공기청정기 이외에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무선청소기 등 안티폴루션(Anti-Pollution·오염 방지) 상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에어프라이어 등 실내용 조리도구 판매량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등 '생활용품' 온라인쇼핑 거래액(8054억원)은 전년 대비 13.0% 늘었다. 모바일쇼핑(5368억원)은 19.5% 증가했다.

한편 1월에는 이른 설 명절의 영향으로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도 늘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38.7% 증가한 1조1809억원, 농·축·수산물은 56.5% 증가한 3952억원이다. 설 명절이 2월 중순이었던 작년에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구매가 2월 초에 집중됐었다.

민경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1월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과 온라인을 통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설 명절을 준비하느라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도 늘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문화 및 레저서비스(-16.3%)'와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5.2%)'는 전년 대비 줄었다. 모바일쇼핑에서는 문화 및 레저서비스(-16.7%)만 감소했다.

뉴시스